

연중 제14주일 복음나눔기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30)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성경을 읽기 전에>

- 다 같이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소리 내어 바칩니다.

5. 독서 (성경읽기 1) - 마태 11,25-30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30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22절)

복음의 앞 단락에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각 고을로 파견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시며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 주도록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심경은 마치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뱀의 슬기를 닮고 비둘기의 순박함을 지니라고 당부하십니다(16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하시며, 너희들을 의회에 넘기고 매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7절). 사실 위의 복음 내용은 예수님 당

시 박해라기보다는 후대에 제자들과 선교사들이 겪게 될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의 유지 23명으로 구성된 의회는 법정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회당에서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유대인들한테서 사십 대에서 하나를 뺀 매를 다섯 차례나 맞았다고 전하고 있지요(2코린11,24), 과잉 형벌을 막기 위해 ‘39대’ 까지로 벌을 제한했다고 합니다(200주년 주해).

그들의 억울한 죄명이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 주며 하늘나라가 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6-8절).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 하지 말라고 일러 주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라고 말입니다(19-20절). 예나 지금이나 무력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폭력은 자행되고 있고.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제자들을 향해 분명히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사도4,8), 베드로와 사도들(사도5,32), 스테파노(사도7,55)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22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낳고 단련은 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사된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로마5,4-5).

제자들의 유약한 믿음도 십자가 사건과 성령강림 이후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당당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 온지 23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사교라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순교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신앙의 터전 위에서 너무나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주일미사조차도 지켜 나가는 것이 힘든 게 현주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쁜 오늘을 사는 현대의 우리에게 복음은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목상나누기

-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박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참아내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상 안에서 바쳐지는 나의 작은 순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견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